

## 양자관계에서 조절초점부합과 과제요구가 공동수행자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

한 덕 응      양 모 현      표 승 연†  
성균관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두 사람이 짝을 이루어 공동으로 집합과제를 수행하는 상황에서 자기와 상대의 만성적 동기지향성인 조절초점과 아울러 과제에서 요구하는 전략이 서로 부합하는 수준에 따라서 상대의 선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험을 통하여 알아내었다. 조절초점부합가설을 대인관계로 확장하여 양자관계에서 과제요구의 조절초점에 부합하는 상대일수록 많이 선택한다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먼저 자기의 항상조절초점이나 예방조절초점이 각각 높은 사람들을 선별하고, 이들에게 항상조절초점과 예방조절초점이 각각 높은 사람들을 제시한 다음에 자신과 공동수행을 함께 할 상대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은 중요한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1)자기와 과제요구의 조절초점이 부합하면 자신과 부합하는 상대를 부합하지 않는 사람보다 많이 선택하였다. 이 현상은 항상조절초점이나 예방조절초점이 높은 사람들에서 모두 일관되게 나타났다. (2)자기와 조절초점이 부합하는 상대를 부합하지 않는 사람보다 많이 선택하였다. (3)과제수행의 전략으로 항상과제, 예방과제 및 복합과제의 세 과제요구에 따라서 자기와 조절초점이 부합하는 상대를 선택한 반응이 달라져서 3원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자기항상조절초점이 높은 사람들은 과제요구와 상관없이 자신과 부합하는 상대를 많이 선택한 바와 달리 자기예방조절초점이 높은 사람들은 예방과제에서만 이 현상을 보였다. 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와 장래 연구를 위한 시사점들도 논의하였다.

주제어: 양자관계, 조절초점부합, 조절초점이론, 항상조절초점, 예방조절초점, 과제요구, 공동수행 상대 선택, 대인 매력, 사회매력

본 연구는 다른 사람과 함께 양자관계를 형성하여 공동으로 집합과제를 수행하는 상황에서 개인이 지니는 동기지향성에서 자신과 서로 부합하는 상대를 어느 정도 공동수행자로 선택하는지 알아내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두 사람이 함께 공동으로 수행하게 될 과제에서 요구하는 전략이 달라지게 되면 양자관계를 형성하면서 자신과 부합하는 상대의 선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알아내려고 한다. 부부, 친구, 이성관계, 공동수행을 비롯해서 다양한 대인관계에서 두 사람이 만성적으로 지니거나 혹은 상황에 따라서 잠시 지니게 되는 동기적

† 교신저자: 표승연 110-745 서울 종로구 명륜동 3가 53번지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wish4sy@hanmail.net.

지향성으로 조절초점의 부합도가 양자관계의 형성, 지속, 혹은 와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내는 일은 이론과 응용에서 모두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우선 이론의 측면에서는 개인 수준의 관점을 넘어서 양자관계 수준에서 대인관계이론을 개발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최근까지도 대인관계의 연구에서 개인 수준의 사회인지이론들이 대부분인 사실을 고려하면 양자관계 수준의 이론이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예상한다. 응용의 측면에서는 이 주제에 관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장차 양자관계의 진단, 개선, 치료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개인이 만성적으로 지속해서 안정되게 지니고 있거나 정보처리 상황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형성하는 동기지향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Higgins(1987; 1997; 1998)는 자기차이이론(self-discrepancy theory)과 조절초점이론(theory of self-regulatory focus)을 제안한 바 있다. 국내에서 조절초점이론과 국내외 연구 결과들을 소개한 문헌으로 한덕웅(2004)을 참고할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고,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되는 부분만을 다루기로 한다. Higgins는 이 이론들을 다룬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개인이 지니는 동기지향성이 정보처리 과정에서 요청되는 전략과 부합되면 가치를 경험하게 된다는 조절초점부합가설(regulatory focus-fit hypotheses; Higgins, 2000b)을 제안하였다.

자기조절초점이론에서는 개인이 만성적으로나 일시적으로 지니는 동기지향성을 향상조절초점(promotion focus)과 예방조절초점(prevention focus)으로 양분하여 설명한다. 이 가운데 향상조절초점이 높으면 쾌락으로 상징되는 좋은 결과에 민감하여 이 목표를 획득하고자 추구하는데 초점을 둔다. 그러므로 이상, 희망, 진보, 성취, 혹은 포부와 같이 개인이 현재보다 더 나은 긍정적 결과를 얻으려는데 초점을 두게 된다. 반면에 예방조절초점이 높으면 고통으로 상징되는 나쁜 결과에 민감하여 이를 회피하는데 초점을 둔다. 그러므로 개인이 잃을 수 있는 부정적 결과를 회피하려고 예방하는데 초점을 두게 된다. 이 이론에 따르면 두 조절초점에 따라서 정보처리나 수행의 과정에서 우세하게 사용하는 전략도 달라진다. 향상조절초점이 높은 사람들은 정보처리에서 접근전략을 사용하고, 과제 수행에서는 정답을 늘리면서 착오나 생략이 나타나지 않도록 전략을 동원한다고

가정하였다. 이와 달리 예방조절초점이 높은 사람들은 정보처리에서 회피전략을 사용하고, 과제수행에서는 정확한 기각을 유지하면서 착오를 범하지 않으려는 전략을 사용한다고 가정하였다.

이 가정들을 토대로 조절초점부합가설을 검증한 실증 연구들에서는 개인이 우세하게 지니는 조절초점과 정보처리나 과제수행에서 요구하는 전략이 부합되면 부합되지 않는 경우와 비교해서 가치를 높게 경험함으로써 초래되는 여러 현상들을 보고하였다. 이 현상들 가운데는 자신에 대해서 느끼는 자기정서(Higgins, Shah, & Friedman, 1997; 강혜자, 한덕웅, 2005; 나영심, 한덕웅, 2005), 정보처리(Higgins, Idson, Freitas, Spiegel, & Molden, 2003; Camacho, Higgins, & Luger, 2003; Crow & Higgins, 1997; 허태균, 2001), 과제수행(Freitas, Liberman, & Higgins, 2002), 설득 정보에 의한 태도변화(Cesario, Grant, & Higgins, 2004; Lee & Aaker, 2004; Evans & Petty, 2003; Grant & Higgins, 1997), 동기(Spiegel, Grant, & Higgins, 2004; Idson, Liberman, & Higgins, 2004; Freitas & Higgins, 2002; Plaks, Higgins, 2000) 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낸 연구들도 포함된다.

지금까지 이 가설을 다룬 연구들은 거의 모두 개인이 특출하게 지니는 조절초점과 정보처리 과정에서 요구되는 전략의 조절초점이 부합되면 부합되지 않는 경우와 달리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알아내려함으로써 개인내 과정으로 다루었다. 다시 말해서 개인이 동기의 측면에서 조절초점과 부합하는 전략이 요구되는 과제를 수행하게 되면 부합하지 않는 경우보다 수행이 좋았음을 알아내었다. 이와 다른 태도변화 연구에서는 개인의 조절초점과 부합하는 방식으로 틀짓기가 된 설득주장을 받게 되면, 동일한 내용의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부합하지 않는 틀짓기 방식으로 제공한 설득주장보다 설득의 효과가 좋았다. 조절초점부합가설에서는 이 현상들이 개인과 대상의 조절초점이 부합하게 되면 가치를 높게 경험하기 때문에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가설을 양자관계에 적용하여 확장함으로써 대인관계에서 자기, 상대, 과제의 조절초점부합가설이 어느 정도 지지되는지 검증하려고 한다.

### 양자의 조절초점부합

앞에서 개인이 특출하게 지니는 조절초점과 정보처리의 전략이 부합되면 가치를 경험한다는 조절초점부합가설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 관점을 토대로 조절초점부합가설과 일관되게 대인관계에서도 자기와 상대의 조절초점이 서로 부합되면 양자관계의 가치를 높게 경험하게 된다고 가정하였다. 두 사람이 양자관계를 이루어서 함께 집합과제를 수행하는 상황에서도 자기와 상대의 조절초점이 부합하면 부합하지 않는 경우보다 가치 경험을 느끼게 된다고 가정하였다. 이 가정은 Higgins의 연구에서 지금까지 개인이 지니는 조절초점과 정보처리 전략의 부합을 개인내과정으로 설명한 바와 달리 양자의 대인과정에서도 조절초점부합가설이 지지된다고 보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해서 대인관계에서도 두 사람의 조절초점이 서로 부합되면 가치의 경험이 높아서 부합하지 않는 경우보다 양자관계를 형성하는 상대로 선택하고, 이 양자관계에 만족하고, 이 관계를 지속해서 유지하려고 하며, 해체하려는 의도는 낮다고 가정하였다.

이 가정과 유사하게 Coolsen(2003)은 교체하고 있는 청년들의 이성관계와 부부관계에서 양자의 조절초점 부합이 관계만족과 상관이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연애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특출한 조절초점과 이성친구의 조절초점이 부합된다고 지각할수록 관계만족이 높음을 알아냈다. 이 연구의 방법을 보면 자기와 이성친구가 각각 지니고 있는 향상조절초점과 예방조절초점을 자신이 지각한 바에 따라서 측정하여 조절초점이 높은 사람들과 낮은 사람들로 양분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보면 자기의 향상조절초점이 낮은 사람들은 상대의 향상조절초점이 자기와 유사하게 역시 낮더라도 높은 경우와 비교해서 관계만족이 높지 않았다. 그러나 자기의 향상조절초점이 높은 사람들은 상대의 향상조절초점이 높다고 지각하면 낮다고 지각한 경우보다 관계만족이 유의하게 높았다. 자기와 상대의 예방조절초점을 다룬 경우에도 향상조절초점을 다룬 경우와 동일한 결과가 반복해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예방조절초점이 낮은 사람들에서는 상대의 예방조절초점이 낮거나 혹은 높다고 지각하는 수준에

따라서 관계만족이 유의하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자기의 예방조절초점이 높은 사람들은 상대의 예방조절초점이 낮다고 지각한 경우보다 높다고 지각하여 자신과 부합하는 경우에 관계만족이 유의하게 높아서 조절초점 부합가설이 지지되었다. Coolsen의 연구에서는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여 결혼한 부부를 대상으로 일관되는 결과도 보고하였다.

Coolsen의 연구는 현재까지 조절초점부합가설을 이성관계와 부부관계에 적용하여 양자관계에서 이 가설을 검증한 드문 연구로서 의미를 지닌다. 또한 각 조절초점이 높거나 낮은 사람들을 선별하여 대조함으로써 두 조건에서 모두 자신과 상대의 유사성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조절초점이 특출하게 높아서 조절초점이 부합되는 양자관계에서만 관계만족이 높음을 알아내는데 의의가 있다. 다시 말해서 조절초점부합가설이나 유사성-매력가설이 이성관계나 부부관계에서 각 조절초점이 높은 양자관계에서만 지지됨을 알아낸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다음 몇 가지 측면에서 조절초점부합가설을 검증하는데 한계가 있다: 먼저 이 연구에서는 현재 교체하고 있는 이성친구나 결혼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다루면서 양자의 조절초점부합과 관계만족을 동시점에서 측정함으로써 이 두 변인의 상관관계를 알아냈으므로 이 두 변인들의 인과관계를 추론하는데 한계가 따른다. 다시 말해서 이성관계나 부부관계에서 양자의 조절초점이 부합하여 관계만족이 높았는지, 혹은 양자의 조절초점이 부합하는 사람들이 관계만족이 높기 때문에 관계를 해체하지 않고 지속하여 상호작용함으로써 조절초점이 부합도가 높아졌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 두 과정이 동시에 진행되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므로 과연 양자의 조절초점부합에 따라서 양자관계의 형성, 만족, 지속이 달라지는지 알아내려면 인과관계를 추론하기 좋은 종단연구나 실험연구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이 연구에서는 양자의 조절초점이 부합하면 부합하지 않는 경우와 비교해서 관계만족이 높은지 알아낸 연구로 보기 어렵다. 이 연구에서 양자의 향상조절초점이나 예방조절초점이 모두 높은 사람들이 모두 낮은 사람들과 비교해서 관계만족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냈기 때문에 비록 두 조건 모두 각 조절초점의 수준은 다르지만 부합도는 동일하게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조절초점

부합가설을 검증하려면 자신의 항상조절초점이나 예방조절초점이 높은 사람들을 가려내어서 자신과 상대가 모두 동일한 조절초점을 지님으로써 부합되거나 서로 다른 조절초점을 지님으로써 부합되지 않는 조건에서 관계만족의 부합가설이 지지되는지 검증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두 가지 지적 사항들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실험실 실험을 통하여 검증하려고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양자관계에서 자신과 상대의 특출한 조절초점이 각각 항상-항상 혹은 예방-예방으로 부합되는 쌍이 되거나 항상-예방 혹은 예방-항상으로 비부합되는 쌍으로 각각 달리 독립변인으로 조작하고, 자신이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수행할 집합과제에서 양자관계를 구성할 상대로 자신과 부합하거나 부합하지 않는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지 종속변인으로 알아내어서 조절초점부합가설이 지지되는지 검증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조절초점부합가설에 따라서 양자의 조절초점이 부합하면 부합하지 않는 경우보다 양자관계를 형성할 상대로 많이 선택하게 된다는 가설을 설정하였다(가설1: 자기와 상대의 조절초점부합가설). 이 가설은 자기조절초점에 따라서 다음 두 가지 방계가설들을 다룸으로써 검증하게 된다: (1-a)항상조절초점이 높은 사람들은 공동으로 집합과제를 수행할 상대로 항상조절초점이 높은 사람을 예방조절초점이 높은 사람보다 많이 선택하게 된다. (1-b)예방조절초점이 높은 사람들은 같은 상황에서 예방조절초점이 높은 사람을 항상조절초점이 높은 사람보다 많이 선택하게 된다. 이 방계가설들은 자기조절초점과 조절초점부합의 상호작용과 단순주효과 분석을 통하여 검증하게 된다.

#### 과제요구와 조절초점부합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Higgins가 제안한 조절초점부합가설은 자기조절초점과 정보처리하게 되는 과제가 요구하는 조절초점의 부합을 중심으로 제안되었다. 이 관점을 양자가 공동으로 집합과제를 수행하는 상황으로 확장하면 자기와 상대의 조절초점부합과 아울러 자기와 과제가 요구하는 조절초점부합, 그리고 상대와 과제의 조절초점부합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이 가설의 논리를 따르면 자기와 상대의 조절초점이 부합하고

과제요구의 조절초점 역시 부합하면 가장 높은 가치를 경험하게 된다. 달리 말해서 항상과제에서는 항상조절초점이 높은 사람들이 역시 항상조절초점이 높은 상대를 선택하거나 혹은 예방과제에서 예방조절초점이 높은 사람들이 예방조절초점이 높은 상대를 선택하게 되면 가치의 경험이 높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항상과제에서 예방조절초점이 높은 사람들이거나 예방과제에서 항상조절초점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조절초점과 과제요구에서 비부합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양자관계의 부합에 따라서 상대를 선택하게 되는지 혹은 과제요구에 따라서 상대를 선택하게 되는지 명확하지 않다. 이 가운데 어느 경우도 자기조절초점, 양자의 조절초점부합, 그리고 과제요구의 세 요소들로 이루어지는 부합들 가운데 상대의 선택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유형의 부합을 예언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가치 경험의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가운데 한 가지 유형의 부합보다 두 가지 부합이 이루어지는 상대를 선택할 확률이 한 가지 부합만 이루어지는 상대를 선택할 확률보다 높다고 추론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양자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들이 다양한 점에 착안하여 다음의 세 가지 과제요구 조건들에서 자기조절초점과 조절초점부합의 상호작용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내려고 한다. 먼저 항상조절초점을 요구하는 항상과제에서는 양자가 공동으로 집합과제를 수행하면서 정답의 수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사용하도록 요구하게 된다. 다음으로 예방조절초점을 요구하는 예방과제에서는 오답의 수를 극소화하는 전략을 사용하도록 요구하게 된다. 끝으로 항상조절초점과 예방조절초점을 모두 요구하는 복합과제에서는 양자가 각자 특출하게 지니는 조절초점에 따라서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양자의 협동을 통해서 집합수행이 결정되도록 요구한다.

각 과제에 따라서 자신과 조절초점이 부합되는 상대를 선택하는 반응이 서로 달라진다고 예상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난다고 예상하였다: 먼저 자기, 상대 및 과제의 조절초점이 모두 부합되는 조건에서는 자기와 과제나 자기와 상대의 조절초점이 부합되지 않는 조건보다 가치 경험이 높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 관점에서 자기와 과제의 조절초점이 부합되는 조건에서는 자신의 조절초점과 부합되지 않는

상대보다 부합되는 상대를 많이 선택한다고 예상한다(가설2: 자기, 상대 및 과제요구의 조절초점부합가설). 이 가설은 과제요구와 자기조절초점에 따라서 다음의 두 조건들에서 검증할 수 있다. 우선 항상과제에서 항상 조절초점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과 부합하는 항상조절초점을 지니는 상대를 부합하지 않는 상대보다 많이 선택한다고 예상된다. 다음으로 예방과제에서는 예방조절초점이 높은 사람들이 자신과 부합하는 예방조절초점의 상대를 부합하지 않는 항상조절초점의 상대보다 많이 선택한다고 예상된다.

끝으로 양자가 협동을 통하여 항상조절초점과 예방조절초점의 전략들을 모두 사용하여야 하는 복합과제에서는, 특히 과제의 공동수행에 따라서 긍정적 보상이나 부정적 처벌이 예상된다면, 자신과 부합하는 조절초점의 상대보다 부합하지 않는 상대를 선택하는 경우에 최대의 집합수행이 예상된다고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와 같이 공동수행의 결과로 중요한 보상이나 처벌이 기대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자기의 조절초점에 따라서 자기와 상대의 조절초점부합이나 자기와 과제의 조절초점부합 가운데 어느 요소에서 더 큰 가치 경험을 하는가에 따라서 자신과 부합하는 상대를 선택하는 반응이 달라진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복합과제에서는 자기조절초점에 따라서 자신과 부합하는 상대를 선택하는 반응이 달라진다고 예상하였다.

지금까지 과제요구에 따라서 항상조절초점이나 예방조절초점이 높은 사람들이 자신과 부합하는 상대를 선택하는 반응이 달리 나타난다고 가정하는 근거들을 살펴보았다. 이 근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두 사람이 공동으로 집합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자기조절초점, 자기와 상대의 조절초점부합 및 과제요구의 세 요소들이 함께 영향을 미쳐서 이 세 3원 상호작용 효과를 보인다고 예상하였다(가설3: 자기조절초점, 양자의 조절초점부합 및 과제요구의 3원 상호작용가설). 앞에서 설명한 바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검증하게 되는 가설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1 (자기와 상대의 조절초점부합가설):** 자기와 상대의 조절초점이 부합하면 부합하지 않는 경우보다 양자관계를 형성할 상대로 많이 선택하게 된다.

**방제가설 1-a:** 항상조절초점이 높은 사람들은 항상 조절초점이 높은 사람을 예방조절초점이 높은 사람보다 많이 선택하게 된다.

**방제가설 1-b:** 예방조절초점이 높은 사람들은 예방 조절초점이 높은 사람을 항상조절초점이 높은 사람보다 많이 선택하게 된다.

**가설 2 (자기, 상대 및 과제요구의 조절초점부합가설):** 자기와 과제요구의 조절초점이 부합되면 자기와 조절초점이 부합되는 상대를 부합되지 않는 사람보다 많이 선택하게 된다.

**가설 3 (자기조절초점, 양자의 조절초점부합 및 과제요구의 3원 상호작용 효과):** 자기, 상대 및 과제요구의 조절초점이 모두 부합되면 다른 조건들보다 자신과 조절초점이 부합되는 상대를 많이 선택하게 된다.

#### 상대의 선택과 매력의 상관관계

본 연구는 양자가 공동으로 집합과제를 수행하는 상황에서 자기조절초점, 양자의 조절초점부합 및 과제요구에 따라서 상대의 선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내는데 목적이 있다. 그런데 각 조건에서 상대를 선택하면서 어느 정도 매력을 느끼는지 알아내게 되면 장래 연구에서 조절초점부합가설을 다루면서 자신과 부합하거나 혹은 부합하지 않는 상대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가치 경험이나 매력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낼 수 있다. 이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조절초점과 과제요구에 따라서 자신과 부합하거나 혹은 부합하지 않는 상대를 선택하는 반응이 상대에 대한 두 종류의 매력과 어떤 상관관계를 보이는지 알아내려고 한다. 이 두 종류의 매력은 상대에 대해서 개인으로서 느끼는 대인매력과 공동과제를 함께 수행할 상대로서 느끼는 사회매력을 말한다. 한덕웅과 황소정(1999)의 연구에서는 이론에서 매력을 이와 같이 구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측정에서도 두 척도들이 변별되어서 부합도가 높음을 보고하였다. 특히 복합과제에서는 항상조절초점과 예방조절초점이 모두 필요하므로 양자의 집합수행을 높이려는 목표가 있으므로 자신과 상대의 조절초점부합에서 경험할 수 있는 대인매력보다 양

자관계가 부합하지 않는 상대에 대해서 공동수행의 성원으로서 느끼는 사회매력이 상대의 선택과 유의한 상관을 보일 개연성이 있다. 다시 말해서 자기조절초점과 과제요구에 따라서 자신과 부합하거나 부합하지 않는 상대를 선택하면서 개인적으로 상대에게 매력을 느끼면서 선택할 수도 있고, 대인매력은 낮으면서도 과제요구에 따라서 사회매력이 높아서 선택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장차 조절초점부합을 다루게 될 연구들에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하여 각 조건에서 상대의 선택과 매력이 어떤 상관관계를 보이든지도 알아보려고 한다.

## 방 법

### 실험설계

자기의 조절초점(향상/예방)×관계조절초점부합(부합/비부합)×과제요구(향상/예방/복합)의 요인설계에서 상대의 조절초점이 반복 측정된 2×(2)×3의 3원 혼합요인설계였다.

### 피험자

서울의 S대학교에서 심리학 관련 과목을 수강하는 368명의 학생들에게 본 연구에서 개발한 조절초점척도를 실시하여 향상조절초점의 점수가 높으면서 예방조절초점의 점수는 낮은 50명의 향상조절초점자들을 선정하고 예방조절초점의 점수가 높으면서 향상조절초점의 점수는 낮은 46명의 예방조절초점자들을 가려내어서 모두 96명의 대학생을 3개 조건에 무선할당하였다.

### 실험절차

실험소개 → 과제소개(지각과제) → 과제요구의 조절초점 조작 → 연습과제 시행 2분 → 상대의 조절초점 조작(질문지 제시) → 종속변인 측정 → 조작점검 → 실험사후설명

### 독립변인 조작

### 자기조절초점의 측정

서울의 S대학교에서 심리학 관련 과목을 수강하는 368명의 학생들 가운데 조절초점척도에서 중앙치를 기준으로 향상조절초점의 점수가 높으면서 예방조절초점의 점수가 낮은 50명(향상초점조건)과 예방조절초점의 점수가 높으면서 향상조절초점의 점수가 낮은 46명(예방초점조건)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본 실험의 참가자들이 아닌 190명을 대상으로 자기와 상대의 조절초점을 측정하는 조절초점척도들을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각 척도들을 구성하는 60개 예비문항들 가운데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통하여 요인타당도, 전체특점과 문항의 상관계수 및 내적일관성계수(Cronbach's α)가 높은 문항들을 선정하면서, 또 다른 182명을 대상으로 이익획득전략과 손실회피전략의 차이도 유의한 문항들을 가려내어서 향상조절초점척도의 9개 문항과 예방조절초점척도의 9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향상조절초점척는 '새로운 과제를 계획할 때에는 성공하면 경험하게 될 이득들을 먼저 고려한다', '여행을 준비할 때 여행지에서 생길 즐거운 일들을 생각해 본다', '영어시험 준비를 할 때는 더 높은 점수를 얻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등으로 구성되었는데, 문항들의 요인부하량은 최소 .32부터 최대 .60이었고, 이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72이었다. 예방조절초점척도는 '새로운 과제를 계획할 때에는 실패하면 경험하게 될 어려운 점들을 먼저 고려한다.' '여행을 준비할 때에는 여행지에서 생길 위험들을 생각해 본다', '영어시험을 준비할 때에는 실패하지 않을 최소한의 점수를 얻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등으로 구성되었는데 문항들의 요인부하량은 최소 .39부터 최대 .60이었고, 이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68이었다. 두 척도에 사용된 문항들은 동일한 주제에서 향상초점과 예방초점만 서로 다르도록 구성하였다.

### 상대조절초점의 조작

지시문에서 "본 과제는 개인수행이 아니므로 여기 함께 실험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1명을 당신과 함께 공동으로 수행할 사람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당신은 자신과 함께 과제를 수행할 상대를 선택하여 당신과 그 사람이 얻은 점수를 합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당신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당신이 상대를

선택하는데 참고가 되도록 이미 당신이 이전에 작성하였던 질문지의 문항들 가운데 일부를 선별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문항들에서 당신이 응답한 내용을 살펴본 다음에 4사람의 참가자들이 응답한 내용을 충분히 살펴보고 당신과 함께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할 한 사람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로 알려주었다. 자신이 반응한 내용은 동일하게 제시하였고 다른 사람들이 반응한 내용은 실험에 목적에 따라서 항상조절초점이 높은 사람, 예방조절초점이 높은 사람, 항상 조절초점이 낮은 사람, 예방조절초점이 낮은 사람의 4 종류로 모든 조건에서 동일하게 제시하였다.

#### 과제요구의 조절초점 조작

3가지 과제에서 요구하는 조절초점들은 각각 다음과 같이 틀짓기(framing) 방식으로 지시문을 조작하였다; (1)항상과제: “모니터에 나타난 단어들을 빨리 보고 최대한 많이 답하여 정답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2)예방과제: “모니터에 나타난 단어들을 빨리 보고 최대한 틀리지 않게 답하여 오답수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3)복합과제: “모니터에 나타난 단어들을 빨리 보고 최대한 많이 답하여 정답수를 늘리는 것과 최대한 틀리지 않게 답하여 오답수를 줄이는 것이 모두 중요하다.” 복합과제에서 참가자마다 차례대로 항상틀짓기와 예방틀짓기의 제시 순서를 상쇄하여 제공하였다.

#### 종속변인

##### 상대 선택

다음 공동과제에서 자신과 함께 과제를 수행할 사람으로 각 상대를 선택한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구체적으로 조절초점이 서로 다른 4명 가운데 “당신이 가장 과제를 함께 수행하고 싶다”고 선택한 사람의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 상대에 대한 매력

상대방에 대한 매력은 한덕웅과 황소정(1999)의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들을 사용하여 개인으로 상대에 대해서 느끼는 개인매력과 공동수행자로서 느끼는 사회매력을 각각 측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개인매력과 사회매

력이 이론의 관점에서 개념적으로만 구별되지 않고, 실제로 측정해서도 타당성이 높게 변별력을 입증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개인매력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868$ 이었고, 사회매력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922$ 이었다.

## 결 과

### 독립변인들의 조작효과 점검

#### 자기조절초점의 조작효과

본 연구에서 개발한 자기조절초점척도를 사용하여 자기의 조절초점을 측정하였다. 이 척도에서 중앙치를 기준으로 항상조절초점이 높으면서 예방조절초점이 낮은 항상조절초점자들과 예방조절초점이 높으면서 항상조절초점이 낮은 예방조절초점자들을 각각 이상의 특징을 얻은 사람들을 선별하였다. 이 결과를 보면 항상조절초점이 높은 사람들은 항상조절초점의 평균( $M=6.03$ ,  $SD=0.35$ )에서 예방조절초점이 높은 사람들의 평균( $M=4.12$ ,  $SD=0.64$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F(1,96)=941.98$ ,  $p=.000$ ). 또한 예방조절초점이 높은 사람들은 예방조절초점의 평균( $M=5.23$ ,  $SD=0.48$ )에서 항상조절초점이 높은 사람들의 평균( $M=3.29$ ,  $SD=0.52$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F(1,91)=89.63$ ,  $p=.000$ ). 이 결과로부터 항상조절초점과 예방조절초점이 각각 높은 사람들을 선별하려는 연구의 목적에 맞게 조작이 효과 있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 과제요구의 조절초점 조작효과

과제조절초점의 조작효과를 점검하기 위하여 항상조절초점을 묻는 “당신은 이 과제에서 최대한 많이 답하여 정답 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들었습니까?”라는 질문에서 과제요구조건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2,82)=232.96$ ,  $p=.000$ ). Scheffe의 사후검증 결과, 항상과제( $M=6.78$ ,  $SD=1.07$ )에서 가장 그렇다고 답했으며, 복합과제( $M=6.12$ ,  $SD=1.21$ ), 그리고 예방과제( $M=1.41$ ,  $SD=0.69$ )의 순으로 점수가 낮았다. 또한, “당신은 이 과제에서 최대한 틀리지 않게 답하여 오답 수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들었습니까?”라는 예방초점 질문에서도 과제조절초점조건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2,82)=206.48, p=.000$ ). Scheffe의 사후검증 결과, 예방조절과제( $M=6.96, SD=0.19$ )의 참가자들은 세 조건 중 가장 그렇다고 답하였고, 복합과제( $M=6.00, SD=1.27$ )의 참가자들은 항상조절과제( $M=1.69, SD=1.30$ ) 조건보다는 점수가 높았으나 예방조절 조건보다는 점수가 낮았다. 이 결과들은 과제요구의 조작이 잘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상대의 조절초점 조작효과**

상대가 지닌 조절초점의 조작효과를 점검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득을 획득하려고 하는 경향을 얼마나 지녔다고 생각합니까?”를 물었는데 대해서 항상조절초점으로 조작한 상대( $M=5.21, SD=1.49$ )에 대한 반응이 예방조절초점으로 조작한 상대( $M=4.07, SD=1.62$ )보다 높았다( $F(1,385)=47.15, p=.000$ ). 또한 손실회피경향에 대한 “이 사람이 손실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얼마나 지녔다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예방조절초점으로 조작한 상대( $M=5.45, SD=1.53$ )에 대한 반응이 항상조절초점으로 조작한 상대( $M=3.29, SD=1.47$ )에 대한 반응보다 높았다( $F(1,385)=45.15, p=.000$ ). 이 결과는 상대의 조절초점 조작이 잘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양자의 조절초점이 부합되거나 부합되지 않는 조건을 다루게 되므로 자기와 상대의 조절초점이 동일하거나 다르게 조작한 조건에서 각각 양자부합 수준을 연구의 목적에 맞게 지각하였는지 알아보았다. 자신과 상대의 조절초점이 부합되는 조건에 대해 실제로 부합된다고 느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선호경향이 당신의 선호경향과 얼마나 부합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답하도록 하였다. 이 질문에 대하여 항상조절초점이 높은 참가자들은 항상조절초점의 상대가 자신과 부합된다는 반응이 높

았으나( $M=5.57, SD=1.33$ ) 예방조절초점의 상대에 대해서는 부합수준( $M=2.57, SD=1.30$ )이 매우 낮다고 보아서 차이가 유의하였다( $F(1,381)=36.71, p=.000$ ). 또한 예방조절초점이 높은 사람들은 예방조절초점의 상대에 대해 자신과 부합된다( $M=4.61, SD=1.54$ )고 생각하였으나, 항상조절초점의 상대에 대해서는 부합수준( $M=3.74, SD=1.61; M=3.72$ )이 낮다고 보아서 차이가 유의하였다. 이 결과들로부터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자기와 상대의 조절초점부합도가 잘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자기와 상대의 조절초점과 과제 요구에 따른 상대의 선택**

자기조절초점(항상/예방), 양자의 조절초점 부합도(부합/비부합) 및 과제요구의 조절초점(항상과제/예방과제/복합과제)에 따라서 자신과 함께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할 상대로 선택한 백분율을 12개 조건별로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그리고 이 자료를 사용하여 각 조건에서 자신과 조절초점이 부합하는 상대를 선택한 백분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로그선형분석으로 알아낸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얻은 중요한 결과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자기조절초점과 부합하는 상대를 선택한 백분율( $M=61.8%$ )이 부합하지 않은 상대를 선택한 백분율( $M=22.6%$ )보다 높았다(Wald Chi-Square=24.609,  $p<.001$ ). 이 결과는 가설 1: 자기와 상대의 조절초점부합가설이 지지되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자기조절초점에 따라서 자신과 조절초점이 부합하는 상대를 선택한 백분율이 달라졌다(Wald Chi-Square=9.686,  $p<.01$ ). 이 2원 상호작용효과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항상조절초점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과 부합하는 항상조절초

표 1. 자기조절초점, 양자조절초점부합 및 과제요구에 따른 상대의 선택 백분율(%)

과제요구	항상과제		예방과제		복합과제		계	
	항상	예방	항상	예방	항상	예방	항상	예방
양자조절초점부합도(n)	19	15	15	16	16	15	50	46
부합	73.7	46.6	66.7	62.5	87.5	33.3	76.0	47.5
비부합	10.5	26.7	20.0	18.8	6.3	53.3	12.3	32.9
평균	42.1	36.7	43.4	40.7	41.9	43.3	44.2	40.2

표 2. 자기조절초점, 양자조절초점 부합, 및 과제요구에 따른 상대 선택 백분률의 로그선형분석

	df	Wald Chi-Square	Sig.
자기 조절초점 (A)	1	1.124	.289
양자조절초점 부합도 (B)	1	24.609	.000***
과제 요구 (C)	2	1.739	.419
A×B	1	9.686	.002**
A×C	2	.084	.959
B×C	2	.613	.736
A×B×C	2	6.391	.041*
A×B at C1	1	2.678	.102†
A×B at C2	1	.010	.919
A×B at C3	1	14.151	.000***
B at A1 at C1	1	17.100	.000***
B at A2 at C1	1	.865	.352
B at A1 at C2	1	5.034	.025*
B at A2 at C2	1	4.931	.026*
B at A1 at C3	1	38.085	.000***
B at A2 at C3	1	.726	.3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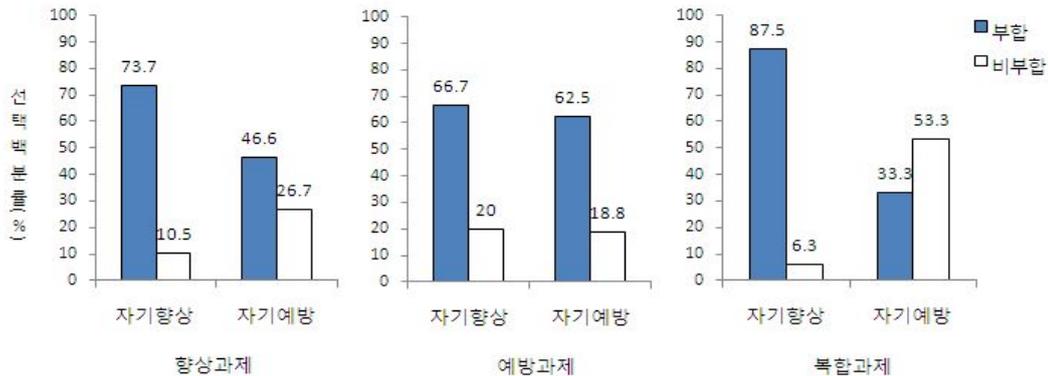


그림 1. 자기조절초점, 양자조절초점 부합도, 및 과제요구에 따른 상대선택 백분률의 삼원상호작용효과

점의 상대를 선택한 백분율이 76.0%로서 자신과 부합하지 않는 예방조절초점의 상대를 선택한 백분율 12.3%보다 높았다(Wald Chi-Square=43.537,  $p<.001$ ). 그러나 예방조절초점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과 부합하는 상대를 선택한 백분율(47.5%)과 부합하지 않는 상대를 선택한 백분율(32.9%)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Wald Chi-Square=1.364,  $p>.10$ ).

앞에서 살펴본 자기와 상대의 조절초점부합에 따른 주효과나 자기의 조절초점과 양자의 조절초점 부합의 2

원 상호작용효과는 모두 자기조절초점, 자기와 상대의 조절초점 부합 및 과제요구의 3원 상호작용이 유의하였으므로 해석에 제한이 따른다(Wald Chi-Square=6.391,  $df=2$ ,  $p=.041$ ). 이 3원 상호작용효과를 그림1에 보기 쉽게 나타내었다.

이 3원 상호작용효과를 상세하게 알아보기 위하여 과제요구별로 단순 주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향상과제에서는 자기조절초점과 양자의 조

절초점 부합의 2원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한 추세를 보였다(Wald Chi-Square=2.678,  $p=.102$ ). 그리고 향상조절초점과 예방조절초점을 모두 요구하는 복합과제에서는 자기조절초점과 양자의 조절초점부합의 2원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였다(Wald Chi-Square=14.151,  $p<.000$ ). 향상과제와 복합과제에서 나타난 자기조절초점과 조절초점의 2원 상호작용효과를 상세하게 알아보기 위하여 과제요구에 따라서 단순단순 주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향상과제에서 향상조절초점이 높은 사람들은 과제에서도 향상조절초점이 요구되면 자신과 부합하는 상대를 73.7% 선택하였으나 부합하지 않는 상대는 10.3%만 선택하여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Wald Chi-Square=17.100,  $p<.000$ ). 그러나 향상과제에서는 예방조절초점이 높은 사람들이 자신과 부합하는 상대를 46.6% 선택하였으나 자신과 부합하지 않는 예방조절초점의 상대를 26.7% 선택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Wald Chi-Square=43.537, n.s.). 이 결과들로부터 향상과제에서 향상조절초점이 높은 사람들만 자신과 부합하는 상대를 부합하지 않는 상대보다 더 많이 선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향상조절초점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조절초점이 과제요구와 부합하면 상대 역시 자신과 조절초점이 부합하는 사람을 다수 선택하여 양자관계를 형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예방조절초점을 요구하는 과제에서도 향상조절초점이 높은 사람들은 과제요구와는 부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조절초점이 부합하는 상대를 선택한 백분율이 66.7%로서 과제와 부합하는 예방조절초점의 상대를 선택한 20.0%보다 여전히 높았다(Wald Chi-Square=5.034,  $p<.05$ ). 그러나 예방조절초점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과 아울러 과제요구에도 부합하는 예방조절초점의 상대를 선택한 백분율이 62.5%로서 향상조절초점의 상대를 선택한 18.8%보다 높았다(Wald Chi-Square=4.931,  $p<.05$ ). 이 결과들로부터 향상조절초점이 높은 사람들은 예방과제에서도 과제요구와 부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부합하는 상대를 부합하지 않는 상대보다 일관되게 많이 선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예방조절초점이 높은 사람들은 향상과제에서와 달리 예방과제에서만 자신과 과제요구에 모두 부합하는 상대를 선택한 백분율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향상과제와 예방과제에서 자신과 상대의 조절초점 부합에 따라서 상대의 선택이 각각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그런데 두 과제요구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면 자기의 조절초점에 따라서 자신과 부합하는 상대의 선택이 일관되거나 달리 나타나는 현상들을 알 수 있다. 우선 자기의 조절초점에 상관없이 향상조절초점이나 예방조절초점이 높은 사람들이 모두 자신과 과제요구와 부합되는 상황에서는 일관되게 자신과 조절초점이 부합하는 상대를 부합하지 않는 상대보다 많이 선택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향상조절초점이 높은 사람들은 향상과제에서 향상조절초점이 높은 상대를 많이 선택하고 예방조절초점이 높은 사람들은 예방과제에서 예방조절초점이 높은 상대를 많이 선택하여 세 요소들의 부합에 따른 효과가 나타났다. 이 결과는 본 연구에서 자기조절초점, 상대조절초점 부합 및 과제요구가 모두 부합하는 상대의 선택이 높다는 가설2: 자기, 상대 및 과제요구의 조절초점부합가설이 지지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일관성과 달리 자기의 조절초점과 과제요구가 부합하지 않는 조건에서는 향상조절초점이나 예방조절초점이 높은 사람들이 자신과 부합하는 상대를 선택한 백분율에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향상조절초점이 높은 사람들은 과제요구가 자신과 부합하는지에 상관없이 자기와 부합하는 상대를 다수 선택하였으나 예방조절초점이 높은 사람들은 향상과제와 달리 예방과제에서만 자기와 상대의 부합 효과가 나타났다. 두 과제 조건들에서 얻은 이와 같은 결과들로부터 향상과제에서는 조절초점과 조절초점부합도의 2원 상호작용이 유의하였으나 예방과제에서는 조절초점부합도의 주효과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양자의 공동과제 수행에서 향상조절초점과 아울러 예방조절초점도 요구되는 복합과제에서 2원 상호작용이 나타난 배경을 살펴보기로 한다(Wald Chi-Square=14.151,  $p<.000$ ). 원칙으로 보면 복합과제에서는 자기의 조절초점과 상반되는 상대를 공동수행자로 선택함으로써 양자의 협력을 통하여 개인이 각자 우세하게 지나는 전략을 동원하는 경우에 공동수행이 극대화된다고 추론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상조절초점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과 부합하는 상대를 선택한 백분율이 87.5%로 부합하지 않는 상대를 선택한 6.3%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Wald Chi-Square=38.085,  $p<.000$ ). 이 결과는 항상조절 초점이 높은 사람들이 과제요구에 적합한 상대를 선택하기보다 자신과 동일하게 항상전략을 사용하여 양자가 부합되는 상대를 선택하여 공동수행에서도 항상전략을 일관되게 사용하려고 하였음을 시사한다. 이와 달리 예방조절초점이 높은 사람들은 복합과제에서 자신과 부합하지 않는 상대를 선택한 백분율(53.3%)과 부합한 상대를 선택한 백분율(33.3%)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Wald Chi-Square=.726, n.s.). 복합과제에서 나타난 자기조절초점과 부합도의 2원 상호작용효과(Wald Chi-Square=14.151,  $p<.000$ )에서 특히 주목할만한 결과는 항상조절초점이나 예방조절 초점이 각기 높은 사람들 가운데 과제요구에 적합하게 자신과 부합하지 않은 상대를 선택한 백분율이다. 이 결과를 보면 항상조절초점이 높은 사람들 가운데 6.3%만 복합과제의 요구에 적합하게 자신과 부합하지 않은 상대를 선택하였으나 예방조절초점이 높은 사람들은 53.3%가 과제요구에 적합한 상대를 선택하여 대조되었다(Wald Chi-Square=9.142,  $p<.01$ ). 복합과제에서 볼 수 있는 결과들을 요약해 보면 항상조절초점이 높은 사람들은 과제요구에 적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부합하는 사람을 공동수행의 상대로 선택하여 모두 항상전략을 사용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예방조절초점이 높은 사람들 가운데 반수 이상이 자신과 조절초점이 부합하지 않음에도 과제요구에 적합하게 항상조절초점이 높은 상대를 선택하여 양자가 복합전략을 사용하기를 기대하였다고 추론할 수 있다. 앞에서 양자의 공동과제수행에서 상대의 선택이 자기조절초점, 양자의 조절초점부합 및 과제요구에 따라서 달라짐을 보았다. 이 결과는 본 연구의 가설3 자기조절초점, 양자의 조절초점부합 및 과제요구의 3원 상호작용가설이 지지되었음을 의미한다.

#### 자기의 조절초점에 따른 상대의 선택과 상대에 대한 매력의 상관관계

과제요구의 각 조건에서 자기와 상대의 조절초점과 상대의 선택이 매력과 어떤 상관관계를 보이는지 알아본 결과는 표3과 같다. 이 상관관계의 분석에서는 상대의 선택여부를 양분하고 개인매력과 사회매력은 각각 7점척도로 측정하여 양분상관계수(rbis)를 산출하였다. 이

표에서 상대의 선택 여부와 매력의 단순상관계수가 유의한 조건들을 자기조절초점에 따라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항상조절초점이 높은 사람들은 항상과제에서 상대의 선택여부와 사회매력의 상관이 유의하고 ( $r_b=.465$ ,  $p<.05$ ), 개인매력과는 유의한 추세를 보였다 ( $r_b=.334$ ,  $p<.10$ ). 항상조절초점자들은 그 밖의 다른 조건들에서는 선택과 매력의 상관이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이 결과는 항상조절초점을 지닌 사람들이 항상과제 조건에서만 상대 역시 항상조절초점을 지닌 사람들을 선택하면서 양자가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게 되는 일원으로서 느끼는 사회매력이 높은 상대일수록 선택하였고, 개인으로 매력을 느끼는 수준이 높을수록 선택하는 추세를 보였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항상조절초점을 지니는 사람들은 항상과제 조건에서만 항상조절초점이 높은 상대일수록 양자의 부합에 따른 가치 경험으로 매력을 느끼고 공동수행자로 선택하였다고 추론 할 있다.

이와 달리 예방조절초점이 높은 사람들은 세 과제요구 조건들에서 모두 상대의 선택 여부와 매력의 상관관계가 유의하였다. 우선 자신의 조절초점과 부합하지 않는 항상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게 된 조건에서는 자기의 조절초점과는 상반되지만 과제요구는 부합되는 항상조절초점의 상대에 대하여 개인매력이 높을수록 더욱 선택하였다( $r_b=.579$ ,  $p<.05$ ). 이 결과로부터 예방조절초점이 높은 사람들이 자기와 부합하지 않는 상대와 항상과제를 수행하게 되면 개인매력이 높은 사람을 선택하였다고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의 조절초점과 부합하는 예방과제에서는 역시 자신과도 부합하는 예방조절 초점 상대의 선택과 개인매력 간에 유의한 역상관관계의 추세를 보였다( $r_b=-.453$ ,  $p<.10$ ). 다시 말해서 예방조절초점을 지닌 사람이 예방과제를 수행하는 조건에서는 자신과 부합하는 예방조절초점의 상대를 선택하면서 개인매력이 낮다고 평가하였다. 모든 조건들 가운데 상대의 선택과 개인매력의 상관관계가 유의한 역상관계수를 보인 조건은 자기, 상대 및 과제요구가 모두 예방조절 초점으로 부합되는 이 조건뿐이었다. 이와 달리 예방조절 초점을 지닌 사람들이 예방과제를 수행하면서 자신과 부합하지 않는 항상조절초점의 상대를 선택한 경우에는 개인매력이 높다고 평가하였다( $r_b=.639$ ,  $p<.01$ ). 예방조절초점을 지닌 사람들이 예방과제에서 오히려 자신과

부합하지 않는 항상조절초점의 상대를 선택하면서 대인매력을 높게 평가하고 자신과 부합하는 예방조절초점의 상대를 선택하면서 대인매력이 낮다고 평가한 사실은 다음 두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항상조절초점이 높은 사람들과 달리 예방조절초점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와 상대의 부합도와 상관없이 과제요구에 적합한 상대에 대하여 대인매력을 느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관계부합이론과 달리 자기, 상대 과제요구가 모두 예방조절초점인 경우에 선택한 상대보다 선택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대인매력이 높다고 인지한 결과가 이미 선택이 이루어진 다음에 대인매력을 평정한 데 따른 효과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이 해석은 선택이 이루어진 다음에 선택한 대안보다 선택하지 않은 대상에 대하여 좋은 태도를 보이는 일종의 결정 후 인지부조화현상이라고 보는 관점이다. 동일한 예방과제이지만 자기예방의 조절초점을 지닌 사람들이 과제의 요구에 적합하지 않게 자신과 부합하지 않는 항상조절초점의 상대를 선택하게 되면 선택하지 않은 사람보다 대인매력이 높다고 평가하였다. 한편 복합과제에서는 항상조절을 지니는 사람이 상대의 조절초점이 자신과 부합하는지에 상관없이 상대의 선택과 개인매력이나 양자관계의 사회매력과 상관 없이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이 결과를 보면 항상조절초점을 지니는 사람들은 복합과제에서도 자기와 부합되는 상대를 압도적으로 선택하고(14/16) 부합되지 않는 상대를 매우 낮게 선택하면서(2/16) 개인매력이나 사회매력에 근거를 두고 선택하지 않고 공동수행을 높이려는 전략에 따라서 선택하였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자기의 조절초점에 따라서 상대의 선택 백분율과 상대에 대한 매력의 상관관계가 유의하였던 결과들을 종합하여 중요한 특징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항상조절초점을 지닌 사람들은 자기, 상대 및 과제가 모두 항상조절초점인 경우에 자신과 부합하는 상대를 73.7%의 다수로 선택하면서 부합하지 않는 상대를 선택한 백분율 10.5%보다 유의하게 높았는데, 자신과 부합하는 상대를 선택하면서 개인매력( $r_b=.334$ ,  $p<.10$ )과 사회매력( $r_b=.465$ ,  $p<.05$ )이 모두 높다고 보았다. 그리고 항상조절초점을 지닌 사람들이 예방과제에서 과제요구에 부합하게 예방조절초점의 상대를 선택한 백분율이 20.0%에 불과하였는데, 이 결과는 과제요구와

무관하게 자기의 조절초점과 부합하는 상대를 선택한 66.7%보다 유의하게 낮았으며, 자신과는 부합하지 않으나 과제요구와는 부합하는 상대를 소수 선택하는 경우에는 사회매력( $r_b=-.484$ ,  $p<.10$ )이 낮다고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과제요구에 따라서 선정하는 전략적 추세를 보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2) 한편 예방조절초점을 지닌 사람들은 항상조절초점을 지닌 사람들과 비교해서 여러 조건들에서 특징을 보였다. 먼저 자기, 상대 및 과제가 모두 예방조절초점인 경우에 자신과 부합하는 상대를 선택한 백분율은 62.5%로서, 부합하지 않는 상대를 선택한 백분율 18.8%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나, 상대를 선택하면서 대인매력은 낮게 평가하여 역상관관계( $r_b=-.453$ ,  $p<.10$ )의 추세를 보였다. 이 결과는 항상조절초점이 높은 사람들이 자기, 상대 및 과제가 모두 부합하는 조건에서 자신과 부합하는 상대를 높게 선택하면서 매력을 높게 경험한 바와는 대조된다. 다시 말해서 예방조절초점을 지닌 사람들은 이 조건에서 자신이 느끼는 대인매력과 상반되게 자신과 부합하는 상대가 오히려 매력이 낮다고 느꼈으나 과제요구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선택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 조건과 대조되게 예방과제조건에서 예방조절초점을 지닌 사람들이 자신과 부합되지 않는 항상조절초점의 상대를 선택한 백분율은 18.8%에 불과하였는데, 이 조건에서 자신과 부합되는 예방조절초점을 지닌 상대를 선택한 백분율 62.5%보다 유의하게 낮았으나, 선택한 상대에 대해서 느낀 사회매력은 높았다( $r_b=.639$ ,  $p<.10$ ). 이 결과는 예방과제에서 예방조절초점을 지닌 소수의 사람들이 자신과 아울러 과제요구에도 모두 부합하지 않는 항상조절초점의 상대에 대해서는 사회매력을 높게 느낀 경우에만 선택하였음을 시사한다.

(3) 다음으로 예방조절초점을 지닌 사람들이 자신과 부합하지 않는 항상과제에서 자신과 부합하지 않지만 과제요구와는 부합하는 항상조절초점의 상대를 선택한 백분율이 26.6%에 불과하였는데, 이 조건에서 자신과 부합하지만 과제요구와는 부합하지 않는 예방조절초점의 상대를 선택한 백분율 46.7%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이 조건에서 예방조절초점을 지니는 사람들 가운데 소수가 자신과는 부합하지 않으나 과제요구에는 부합하는 상대를 선택하면서 개인매력( $r_b=.579$ ,

표 3. 조건별 상대의 선택과 상대에 대한 개인매력 및 사회매력의 상관

과제요구	향상과제				예방과제				복합과제			
	향상		예방		향상		예방		향상		예방	
자기조절초점	부합	비부합	부합	비부합	부합	비부합	부합	비부합	부합	비부합	부합	비부합
조절부합도												
선택비율(n)	14/19	2/19	7/15	4/15	10/15	3/15	10/16	3/16	14/16	1/16	5/15	8/15
비선택비율(n)	5/19	17/19	8/15	11/15	5/15	12/15	6/16	13/16	2/16	15/16	10/15	7/15
개인매력	.334†	-.103	-.373	.579*	.309	-.331	-.453†	.639**	.080	-.042	-.317	.651**
사회매력	.465*	-.149	-.433	.491†	.190	-.484†	-.215	.300	-.060	.030	.058	.620*

$p < .05$ )과 사회매력( $rb = .491$ ,  $p < .10$ )이 모두 높다고 평가하였다. 이 결과들로부터 향상과제에서는 예방조절초점을 지닌 사람들 가운데 소수가 자신과 조절초점이 부합하지는 않지만 과제요구와는 부합하는 향상조절초점의 상대들 가운데 매력이 높은 사람들만을 선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4)끝으로 예방조절초점을 지닌 사람들 가운데 복합과제에서 과제요구에 맞추어서 자신과 조절초점이 부합하지 않는 향상조절초점의 상대를 선택한 백분율이 53.3%에 이른다. 이 조건에서 예방조절초점을 지니는 상대를 선택한 백분율은 33.5%였으나 53.3%와 비교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그리고 향상조절초점을 지닌 사람들이 복합과제 조건에서 자신과 부합하지 않는 예방조절초점의 상대를 선택한 백분율도 6.5%에 불과하여, 예방조절초점을 지닌 사람들이 복합과제 조건에서 과제요구에 따라서 자신과 부합하지 않는 상대를 선택한 백분율 53.3%와는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복합과제에서 예방조절초점을 지닌 사람들 가운데 자신과는 부합하지 않지만 과제와는 부합하는 상대를 선택한 53.3%가 상대가 개인매력( $rb = .651$ ,  $p < .001$ )과 사회매력( $rb = .620$ ,  $p < .05$ )이 모두 높다고 평가하였다. 이 결과는 향상조절초점을 지닌 사람들이 복합과제조건에서 자신과 부합하지 않으나 과제와 부합되는 상대를 6.5%만 선택하면서 개인매력( $rb = -.042$ , n.s.)이나 사회매력( $rb = .030$ , n.s.) 모두와 아무 상관도 없었던 바와 대조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자기의 조절초점과 과제요구에 따라서 상대의 선택과 매력의 상관이 달라진 결과들에서 일

관되는 현상도 볼 수 있다: 예방조절초점을 지니는 사람들은 세 과제요구 조건들에서 자신과 부합하지 않는 상대를 선택하면서, 비록 선택의 백분율은 서로 달랐지만, 일관되게 개인매력이 높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향상조절초점을 지니는 사람들은 세 과제요구 조건들에서 일관되게 상대의 선택과 개인매력의 상관계수가 모두 유의하지 않아서 비록 자기와 부합하지는 않더라도 과제요구에 부합하는 상대를 전략적으로 선택하기는 하지만 적어도 개인적으로 호감을 느끼지는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현상들을 근거로 예방조절초점을 지니는 사람들은 향상조절초점을 지니는 사람들과 달리 비록 과제요구에 따라서 자신과 부합되지 않는 상대를 선택하더라도 호감을 보이게 된다는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다.

### 논 의

본 연구에서는 Higgins(2000b)가 제안한 조절초점부합(regulatory focus-fit)의 가설이 개인내 과정을 넘어서 양자관계에서도 지지되는지 실험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이 실험에서는 자기와 상대의 조절초점, 자기와 상대의 조절초점 부합도 그리고 과제요구의 세 요소들이 서로 부합하거나 혹은 부합하지 않는 조건들에서 양자가 공동으로 집합과제를 수행할 상대로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지 알아보았다. 먼저 이 연구에서 얻은 결과들 가운데 가설들의 검증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현상들을 정리하여 차례대로 논의하기로 한다.

(1)자기와 과제의 조절초점이 부합하는 조건에서는

항상조절초점이나 예방조절초점이 각각 높은 사람들이 모두 자신과 부합하는 조절초점을 지니는 상대를 다른 조건들보다 다수 선택하였다. 자기조절초점에 따라서 이 결과를 상세하게 살펴보면 항상조절초점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과 부합하는 항상과제를 수행하면서 자신과 과제요구에 모두 부합하는 항상조절초점의 상대를 선택한 백분률이 73.7%로서 부합하지 않는 상대를 선택한 10.5%보다 높았다. 또한 예방조절초점이 높은 사람들도 자신과 부합하는 예방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 공동수행의 상대로 예방조절초점이 높은 사람을 선택한 백분률이 62.5%로서 부합하지 않는 상대를 선택한 18.8%보다 높았다. 이 결과들로부터 항상조절초점이나 예방조절초점이 각각 높은 사람들이 일관되게 자기, 상대 및 과제요구의 세 요소들이 모두 부합하면 상대의 선택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자기와 과제요구의 조절초점이 부합하는 경우에 가치를 높게 경험한다는 Higgins의 조절초점부합가설이 개인의 조절초점과 정보처리 전략의 부합을 연구하는 개인과정뿐만 아니라 양자관계의 대인과정으로 확장한 경우에도 지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양자가 공동으로 집합과제를 수행하는 상황에서 양자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대를 선택하는 과정을 다루었는데, 가치 경험의 매개효과를 직접 다루지 않고 가치경험에 따라서 개인매력이나 사회매력이 선택과 어떤 상관관계를 보이는지 알아보았다. 그러므로 장래연구에서는 본 연구결과의 반복검증과 아울러 자기, 상대 및 과제요구 세 요소의 조절초점들이 부합하는 경우에 과연 가치경험이 높아져서 그 결과로 선택이 높아졌는지 매개과정에 관해서도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

(2) 항상조절초점이나 예방조절초점이 높은 사람들이 각각 상대로 선택한 백분률을 보면 전체로는 자신과 부합하는 상대(61.8%)가 부합하지 않은 상대(22.6%)보다 높았으나 자신의 조절초점과 과제요구에 따라서 서로 다른 현상이 나타났다: 먼저 자기조절초점에 따라서 자신과 부합하는 상대를 선택한 백분률을 보면 항상조절초점이 높은 사람들은 76.0%로서 부합하지 않는 상대를 선택한 12.3%보다 높아서 양자의 부합도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졌다. 이 결과는 항상조절초점이 높은 사람들에 서 양자의 조절초점부합이 가치 경험을 초래한다는 조

절초점부합가설이 지지되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와 달리 예방조절초점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과 부합하는 상대를 47.5% 선택하고 부합하지 않는 상대를 32.9% 선택하여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 결과는 예방조절초점이 높은 사람들에서는 양자의 조절초점부합 가설이 지지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 두 결과는 과제요구에 따라서 자기조절초점과 양자의 조절초점부합의 상호작용 효과가 달라졌기 때문에 다음에 제시하는 3원 상호작용효과를 토대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3) 항상조절초점이 높은 사람들은 세 과제요구 조건들에서 모두 일관되게 자신과 조절초점이 부합되는 상대를 선택한 백분률이 부합되지 않는 상대보다 높아서 과제요구와 상관없이 양자의 조절초점부합가설이 지지되었다. 그러나 예방조절초점이 높은 사람들은 예방과제에서만 자신과 부합하는 상대를 선택한 백분률이 부합하지 않은 상대보다 높아서 조절초점부합가설이 지지되었다. 이들이 항상과제와 복합과제에서 자신과 부합하는 상대를 선택한 백분률은 비부합 상대의 선택 백분률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서 양자관계의 부합가설이 지지되지 않았다. 이 두 조건들에서 얻은 결과들은 이 가설과 관련해서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예방조절초점이 높은 사람들이 자신과 부합하지 않는 항상과제에서는 자신과 부합하는 상대나 과제요구와 부합하는 상대의 선택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 결과로 보면 예방조절초점이 높은 사람들이 자신과 부합하지 않는 항상과제에서는 자신과 상대의 조절초점부합과 아울러 자신이나 상대의 조절초점과 과제요구의 부합을 유사한 수준으로 고려하였음을 시사한다. 이 현상은 복합과제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복합과제에서는 양자의 수행에서 두 사람이 각기 항상전략과 아울러 예방전략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에 높은 집합수행이 예상된다. 그런데 항상조절초점이 높은 사람들은 복합과제에서도 자신과 부합하는 상대를 다수 선택하여 두 사람 모두 항상전략을 사용하려 하였다고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예방조절초점이 높은 사람들은 이와 달리 양자의 조절초점부합을 반영하여 예방조절초점이 높은 사람을 선택한 백분률이 과제요구와 조절초점이 부합하는 상대를 선택한 백분률과 차이가 없었다. 이 결과로부터 예방조절초점이 높은 사람들은 복합과제에서 공동수

행의 상대를 선택하면서 자신과 상대의 조절초점부합뿐만 아니라 자신과 과제의 부합 및 상대와 과제의 부합을 함께 반영하였다고 추론할 수도 있다. 이들은 이를 통해서 양자가 각자의 전략으로 공동과제에서 협동함으로써 양자의 집합수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추구하였다고 추론할 수 있다.

양자관계에서 조절초점부합가설을 검증하는데 있어서 복합과제는 항상과제나 예방과제와 구별되는 의미를 지니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제에서는 자기조절초점이 서로 다른 양자가 공동으로 집합과제를 수행하면서 각자가 우세하게 지니는 수행전략을 사용하여 협동하는 경우에 높은 공동수행이 예상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과제요구로 보면 항상과제나 예방과제와 달리 복합과제에서는 상대의 조절초점이 부합하는 경우보다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공동수행의 목표로 볼 때 실제로 더 잘 부합하는 의미를 지닌다. 이 관점에서 공동수행의 목표를 기준으로 보면 항상조절초점이 높은 사람들이 과제요구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과제요구 조건들과 마찬가지로 복합과제 조건에서도 자신과 조절초점이 부합하는 상대를 많이 선택한 현상은 오히려 자기와 상대가 조절초점의 부합을 중시한 나머지 과제요구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추론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예방조절초점이 높은 사람들은 복합과제에서 자신과 부합하거나 부합하지 않는 상대를 선택한 백분율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음으로써 적어도 자기와 상대의 부합을 고려한 수준으로 과제요구와 상대의 부합도 함께 반영하였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 추론들에 관해서는 장래 연구에서 검증할 필요가 있다.

#### 양자의 공동과제 수행전략의 선택과 집합수행

앞에서 항상조절초점을 지닌 사람들이 과제요구에 상관없이 자신과 부합하는 항상조절초점의 상대를 선택하는 백분율이 일관되게 높았음을 보았다. 그러나 예방조절초점을 지닌 사람들은 특히 항상과제와 복합과제에서 과제요구에 맞추어 자신과 부합하지 않는 상대를 선택한 백분율도 높음을 알았다. 이 사실은 자신과 상대의 조절초점과 과제요구에 따라서 실제로 두 사람이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 전략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먼저 항상조절초점을 지닌 사람들 가운데 다수는 자신과 부합하는 상대를 다수 선택하였으므로 과제요구에 상관없이 자신과 상대가 모두 공동수행에서도 항상조절초점의 전략들을 사용할 개연성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은 공동수행을 높이기 위하여 문제풀이를 시도한 총수나 수행량과 아울러 오답 수도 높으리라고 예상된다. 이와 달리 예방조절초점을 지닌 사람들은 자신과 부합하지 않는 항상조절초점의 상대와 공동과제를 수행하면서 시도한 문제의 수와 오답수는 작지만 정답수는 높으리라고 예상된다. 특히 복합과제에서 예방조절초점이 높은 사람들은 부합하지 않는 상대와 공동수행에서 서로 다른 전략을 사용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추론할 수 있다. 항상조절초점을 지니는 사람들은 자신과 부합하지 않는 상대를 선택한 백분율이 6.5%에 불과하였는데 예방조절초점을 지닌 사람들은 53.3%에 이른다. 이 사실을 근거로 보면 항상조절초점을 지닌 사람들 가운데 과제요구에 적합하게 자신과 부합하지 않는 사람을 공동수행할 상대로 선택한 사례가 극히 적어서 다수가 상대의 예방전략을 기대하지 않고 자신과 부합하는 상대와 함께 동일한 전략으로 수행하여 시도와 정답을 높이려 한다고 예상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예방조절초점을 지니는 사람들은 자신과 부합되지 않으나 요구와는 부합하는 항상조절초점의 상대를 53.3% 선택함으로써 반수 가량이 상대의 전략에 기대를 걸고 두 사람이 서로 상호의존하여 복합과제에서 서로 다른 전략으로 협력함으로써 수행을 높이려 한다고 예상할 수 있다. 앞으로 실제로 양자가 공동으로 집합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 이 예상이 어느 정도 지지되는지 알아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자기와 상대의 조절초점과 과제요구에 따라서 각 조건에서 두 사람이 각각 어떤 수행전략을 우세하게 사용할지 개연성을 살펴보았다. 이 시사점에 관해서는 장래 연구를 통해서 각 예언의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본 연구의 의의, 제한점 및 장래 연구의 과제

본 연구에서는 각 조절초점이 높은 사람들을 가려내기 위하여 항상조절초점의 특징이 중앙치보다 높으면서 예방조절초점의 특징은 낮아야만 항상조절초점을 지닌

사람으로 선정하였다. 예방조절초점을 지니는 사람을 선정한 방법도 이와 같았다. 이 때문에 조작효과의 검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 척도치에서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두 조절초점을 지닌 사람들이 잘 변별되도록 선정하였는지 확인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 참여한 두 조절초점의 사람들을 평균으로 보면 항상조절초점이 높은 사람들의 항상조절초점 측정치 평균을 보면 7점척도에서  $M=6.03(SD=0.35)$ 이었으나 예방조절초점이 높은 사람들은 예방초점의 평균이  $M=5.23(SD=0.48)$ 로서 항상조절초점을 지니는 사람들의 평균이 다소 높았다. 이 사실은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이 속한 한국 대학생들 가운데 다수가 현재의 자기에 비해서 자기성장을 추구하려는 항상조절초점의 동기가 높은 점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 대학생의 사회비교 과정을 다룬 한덕웅(1999)의 연구에서 과제수행을 통해서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를 경험한 사례를 포함시키더라도 모든 참가자들 가운데 63.3%에 이르는 학생들이 자기방어보다 자기향상의 동기에 의해서 사회비교에서 자신보다 나은 상향비교의 대상을 선택하여 본 연구와 일관되는 추세를 보였다. 이 현상들은 최근 한국문화에서 경제와 사회의 측면에서 급속하게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특히 대학생들의 경우에 신분상승을 추구하면서 자기성장의 동기가 높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도 있다. 장래 연구에서는 항상조절초점이 높은 사람들의 득점만큼 예방조절초점이 높은 사람들을 가려내어서 선정한 경우에도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가 반복해서 입증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조절초점척도들에서 양자관계보다 개인이 지니는 일반적인 동기로 조절초점을 측정하였다. 비록 개인이 지속해서 안정되게 지니는 일반적인 조절초점에 따라서 양자관계의 조절초점 역시 어느 정도 측정될 수는 있겠지만 장래 연구에서는 이성관계, 부부관계, 친구관계 등으로 각 양자관계에 따라서 중요한 목표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세하게 나타나는 조절초점의 동기를 측정하기에 알맞도록 관계조절척도들을 개발하여 각 대인관계의 연구에 사용하면 조절초점척도들의 타당도가 더 좋아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처음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상황에서 상대를 선택하여 양자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을 다루었다. 장래 연구에서는 다양한 양

자의 대인관계에서 이 단계를 지나서 실제로 오랜 기간에 걸쳐서 함께 생활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서 조절초점, 조절초점의 부합도 그리고 과제요구가 양자관계의 지속이나 와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표승연과 한덕웅(2010)은 앞에서 지적한 두 요구들을 반영하여 결혼하기 이전의 청년들이 이성관계에서 흔히 추구하는 목표들을 선정하여 항상조절초점과 예방조절초점을 측정하는 조절초점척도를 개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양자조절초점의 부합이 양자가 교류하면서 초래된 행동의 결과와 상호작용하여 관계만족과 결별의도 영향을 미침을 알아내었다. 부부관계나 친구관계를 비롯해서 다양한 양자관계들에 알맞는 조절초점척도들을 개발하여 양자관계의 형성뿐만 아니라 여러 종속변인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장차 친밀한 관계나 집단과정의 연구에도 활용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의 결과는 Byrne(1961)이 제안한 유사성-매력가설의 관점에서도 시사점을 제공한다. 조절초점 부합가설에서 양자의 조절초점이 부합하면 부합하지 않는 경우보다 가치경험이 높다고 가정한다. 이 가설을 유사성-매력가설의 관점에서 보면 조절초점이라는 특수한 유사성에 따라서 매력이 달라진다는 주장으로 해석할 수 있다. Coolsen(2003)은 이 해석과 유사하게 양자의 조절초점부합가설이 유사성-매력가설의 일종으로 인지일관성 이론(cognitive consistency theories) 가운데 일치성 이론(congruity theory)에 가깝다고 주장한 바가 있다. 그런데 그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이성관계와 결혼한 부부관계에서 일관되게 자기와 상대의 조절초점이 높다고 지각하여 부합한 사람들은 상대의 조절초점이 낮다고 지각하여 자신과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관계만족이 높았다. 이 결과는 자기조절초점이 항상조절초점이거나 예방조절초점인 사람들에서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양자의 조절초점이 높아서 부합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낮아서 부합된 사람들도 모두 실제로는 양자의 유사성이 비슷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절초점이 높게 부합된 사람들만 만족이 높아서 이 경우에만 유사성-매력가설이 지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결과는 유사성-매력가설이 지지되는 조건이 한정되어서 다른 변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 가설이 지지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유사하게

한덕웅·황소정(1999)의 연구에서도 양자가 공동으로 집합과제를 수행하는 상황에서 과제요구에 따라서 공동수행의 상대로 선택한 상대에 대한 개인매력과 사회매력이 달라진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 연구에서 두 사람이 모두 동일한 전략을 사용하여야 집합수행을 높일 수 있는 응집성과제에서는 자신과 유사한 사람을 공동수행의 상대로 많이 선택하면서 개인매력이 높다고 평가하여 유사성-매력가설이 지지되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많이 생산하여야하는 다양성과제에서는 자신과 다른 사람을 많이 선택하고 사회매력도 높아서 유사성-매력가설의 예측과 상반되는 결과를 얻었다. 본 연구에서도 자기조절초점과 양자의 조절초점부합이 과제요구에 따라서 달라짐을 알아내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장차 유사성-매력가설에 관하여 조절초점부합가설의 관점에서 연구하면서 유사성과 매력관계를 조절하는 심리변인들에 관하여 더욱 많은 연구가 요청됨을 알 수 있다.

전체로 보면 본 연구는 양자관계를 형성하는 단계에서 자기와 상대의 조절초점, 양자의 조절초점부합, 그리고 과제요구에 따라서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할 상대의 선택과 매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낸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항상조절초점을 지니는 사람들이 과제요구에 상관없이 모든 과제에서 일관되게 자신과 부합하는 상대를 많이 선택한 바와 대조되게 예방조절초점이 높은 사람들은 과제요구에 따라서 자신과 부합되는 조절초점의 소유자를 선택하는 백분율이 달라짐을 알아내었다. 그리고 두 조절초점을 지니는 사람들이 자신과 함께 공동과제를 수행할 상대를 선택하면서 매력을 느끼는 수준이 서로 다름도 알아내었다. 장래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반복검증하고 조절초점부합과 선택이나 매력의 인과관계를 조절하거나 매개하는 변인들에 관해서도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

### 참고 문헌

강혜자·한덕웅(2005). 자기차이에 따른 우울과 불안의 경험.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0(3), 349-374.

- 나영심·한덕웅(2005). 자기지침과 조절초점의 불일치가 자기정서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0(4), 431-453.
- 표승연·한덕웅(2010). 이성관계에서 관계만족과 결별의도를 설명하는 심리요인들.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한덕웅(2004). 인간의 동기심리. 박영사.
- 한덕웅·황소정(1999). 집단수행 상황에서 유사성-매력가설의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 255-275.
- 히태균(2001). 사후가정사고의 활성화에서 조절적 동기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2), 159-171.
- Byrne, D.(1961). Interpersonal attraction and attitude similarity.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2, 713-715.
- Camacho, C. J., Higgins, E. T., & Luger, L. (2003). Moral value transfer from regulatory fit: What feels right is right and what feels wrong is wro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3), 498-510.
- Cesario, J., Grant, H., & Higgins, E., T.(2004). Regulatory Fit and Persuasion: Transfer from "Feeling Righ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6(3), 388-404.
- Coolsen, M., K.(2003). *A self-regulatory focus model of couple well-being*. A dissertation of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for the degree of Doctor of Philosophy.
- Crowe, E., & Higgins, E. T. (1997). Regulatory focus and strategic inclinations: Promotion and prevention in decision making.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69, 117-132.
- Evans, L. M., & Petty, R. E. (2003). Self-guide framing and persuasion: Responsibly increasing message processing to ideal level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9, 313-324.
- Freitas, A. L., & Higgins, E. T. (2002). Enjoying goal-directed actions: The role of regulatory fit. *Psychological Science*, 13(1), 1-6.
- Freitas, A. L., Liberman, N., & Higgins, E. T. (2002).

- Regulatory fit and resisting temptation during goal pursuit.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8*, 291-298.
- Grant, H., & Higgins, E. T. (1997). *Are positive or negative messages more persuasive?: Regulatory focus as moderator*. Unpublished manuscript, Columbia University.
- Higgins, E. T. (1987). Self-discrepancy: A theory relating self and affect. *Psychological Review*, *94*, 319-340.
- Higgins, E. T. (1997). Beyond pleasure and pain. *American Psychologist*, *52*, 1280-1300.
- Higgins, E. T. (1998). Promotion and prevention: Regulatory focus as a motivational principle. In M. P. Zanna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30, pp. 1-46).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Higgins, E. T. (2000b). Making a good decision: Value from fit. *American Psychologist*, *55*, 1217-1230.
- Higgins, E. T., Idson, L. C., Freitas, A. L., Spiegel, S., & Molden, D. C. (2003). Transfer of value from fi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6), 1140-1153.
- Higgins, E. T., Shah, J., & Friedman, R. (1997). Emotional responses to goal attainment: Strength of regulatory focus as moderat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 515-525.
- Idson, L. C., Liberman, N., & Higgins, E. T. (2004). Imagining how you'd feel: The role of motivational experiences from regulatory fi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0*, 926-937.
- Lee, A. Y., & Aaker, J. L. (2004). Bringing the frame into focus: The influence of regulatory fit on processing fluency and persua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6*, 205-218.
- Plaks, J. E., & Higgins, E. T. (2000). Pragmatic use of stereotyping in teamwork: Social loafing and compensation as function of inferred partner-situation fi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6), 962-974.
- Spigel, S., Grant, H., & Higgins, E. T. (2004). How regulatory fit enhances motivational strength during goal pursuit.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4*, 39-54.

## The Effects of Regulatory Focus-fits among Self, Partner and Task Demands upon Partner Choice in Collective Task

Doug Woong Hahn   Mo Hyun Yang   Seung Yeon Pyo  
Sungkyunkwa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rough a laboratory experiment the effects of regulatory focus-fits among dyad and task demands upon partner choice in collective task. It was hypothesized that the higher the regulatory focus among self, partner, and task demands, the higher the choice as the participant's partner. The experiment was performed with 2 self-regulatory focus(promotion vs. prevention) × (2) regulatory focus-fits between self and partner(fit vs. nonfit) × 3 task demands(promotion vs. prevention vs. mixed strategy) randomized mixed factorial design. Self-regulatory focus was measured by two self-regulation scales and the participants with high-promotion or high-prevention focus were selected. Regulatory focus of two potential partners were manipulated by two questionnaires. The task demands were framed in terms of the task performance strategies. Ninety eight participants were randomly assigned to 6 condi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main hypothesis of regulatory-fits were confirmed: (1)Participants chose good-fit partners more than poor-fit partners. (2)Higher choice of good-fit partners was consistently observed among the participants with high-promotion focus in spite of differences in task demands. But choice of good-fit partners was differently appeared according to the task demands. (3)Three way interaction effect of self-regulatory focus, self-partner regulatory fits and task demands were also found.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in terms of the regulatory focus-fit hypotheses and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the suggestions for further study were added.

*Keywords:* dyad regulatory focus-fits, self-regulatory focus, promotion focus, prevention focus, task demands, collective task, partner choice, interpersonal attraction, social attraction

1차원고 접수일 : 2010년 10월 9일  
수정원고 접수일 : 2010년 11월 19일  
게재 확정일 : 2010년 11월 19일